

## 레드벨벳, '서머퀸' 저력 보이며 컴백



▲ 레드벨벳. 사진=SM엔터테인먼트

1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걸그룹 레드벨벳이 전 세계 50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서머퀸'의 저력을 보였다.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전날 공개된 새 미니앨범 '퀸덤' (Queendom)으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0개 지역 1위를 기록했다. 이 앨범은 중국 플

랫폼인 QQ뮤직 및 쿠거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퀸덤'도 발매 직후부터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곡은 한국의 멜론 '톱 100' 차트에서 17일 오전 10시 기준 5위에 올랐고 지니뮤직 실시간 차트에서는 같은 시각 1위를 기록했다.

레드벨벳은 그동안 '빨간 맛', '음과음과', '과워 업' 등 여름 노래를 잇달아 히트시키며 '서머퀸'으로 불렸다. 또 하나의 여름 노래인 '퀸덤'은 레드벨벳 특유의 독특한 색채는 다소 덜어냈지만 청량한 느낌과 멤버들의 성숙해진 보컬이 부각됐다.

레드벨벳은 2019년 12월 발매한 '사이코'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으나 멤버 웬디가 그해 연말 가요대전 리허설 도중 부상으로 한동안 치료에 전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멤버 아이린이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컴백은 자숙을 거친 아이린이 활동을 재개하는 앨범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에 못매

다수의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전 농구선수 허재가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허재는 지난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속편허재' 광고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허재는 5번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 한잔허재 광고모델 허재. 사진=한잔허재 공식 홈페이지

허재는 현역 시절이던 1993년 자택 근처의 호텔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00일간 면허정지를 당했고, 1995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또 1996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에 무면허 사고를 내며 징

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역 은퇴 후인 2003년에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불법유턴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주운전이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갈 문제냐?"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광고 모델로 섭외한 업체도 수락한 허재도 문제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허재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주당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소주를 가장 좋아한다. 혼자서 5~6병을 마시고, 많이 마셨을 때는 4명이 소주 70병 정도를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 박수홍 "사생활 의혹 사실이면 방송계 떠날 것"



▲ 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방송인 박수홍(51)이 최근 유튜버가 제기한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은퇴까지 언급하며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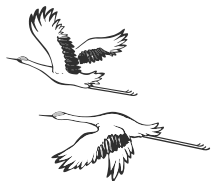
박수홍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지는 않겠다. 다만 수사당국의 결과를 기다려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만약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백배사죄하고 뉘우침을 치르며 방송계를 영원히 떠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드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 침묵으로 인해 제 가족을 비롯해 주변 이들과 함께해준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과 관련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으며 박수홍이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반려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해당 유튜버와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23세 연하인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 옛날돈, 마패, 기념주화 좋은가격으로 샅너다



\*가품은 거절합니다.

문의전화: Mr. Chu 626.465.6164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1997년 11월 경  
714 S. Serrano Ave #106, LA

CHO, CHONG SOON 님  
(37년 10월 3일 생)  
Wife: SAM YEE CHO  
Son: MICHAEL CHO

\*소식을 아시거나 연락 가능하신 분도 연락주세요.